

4. 결론

하나님의 지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죄중에 얹매인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 주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세상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세상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우주관과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 인생관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를 다스리며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중심한 복음 전파의 교회를 바로 인식하고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 고백의 테두리에서 교회를 통한 봉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현대 교회를 도전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광야의 소리

한명동

(전칼빈대학 초대학장·원로목사)

행차

옛부터 왕의 행차에는 반드시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립에도 역시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필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복음의 준비로서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여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떠고 온 것이다.

광야

광야는 외계와 단절되어 자신이 하나님 품으로 깊이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장소이다. 광야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화 세계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산업 도시, 기계 문명, 산업 경제와도 거리가 먼 곳이다.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인한 공해도 없는 곳이다. 인간이 거의 없는 곳이고 야생수가 우글거리는 원시 상태 그대로이다. 적막하고 고

적하고 외계와는 단절된 곳이다. 외계와 단절된 그 시간은 나의 내적 생명을 가장 풍성케 하는 내실의 시간이다. 광야는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고독한 곳이다.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심으로 여호와에게만 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명상의 곳이며 기도의 지성소이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치시하며 내일을 구상하며 설계할 수 있는 심오한 곳이기도 하다. 이 광야는 야곱을 시련한 장소이다(창 28:19).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를 훈련시킨 장소이다(출 3:1). 초대 교회 전설자 바울 사도를 연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갈 1:17).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시련을 받았었고(마 4:1,2),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마 3:1).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야의 소리

이 소리는 말라기 선지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의 400년 간의 예언의 침묵을 깨뜨린 소리였다. 그 시대는 예언의 황무지, 도덕의 황무지, 정신계·영계·종교계·신앙세계의 불모지였다. 그 당시는 말씀 없는 영적 진공 상태였다. 원래 진공상태에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위험한 지대이다. 종교계가 부패 타락한 영적 진공 상태의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영계, 신양 세계의 진공 상태가 오래 계속 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근본적인 파멸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 세계, 영적 신양 세계에 진공이 오면 사탄은 죄악적인 세력을 총동원하여 진리의 왕국을 정복하고자 한다. 기독 교회의 영적 힘은 상실하고 교계의 진공이 생기면 사단의 세력은 그 영적 진공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진리 왕국을 교란시키며 파괴시킨다. 세례 요한의 그 시대는 말씀 없는 적막한 시대, 예언 없는 황폐한 시대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무질서의 시대였다(사사 시대와같이).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소리는 지도자 없는 종교계에, 예언 없는 황폐한 이스라엘 사회에, 신앙적으로 깊이 잠든 시대를 향하여 잠을 깨운 소리였다. 깊은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벽이 올 것을 알리는 소리였다. 일어나라는 소리였고, 옷을 입고 영적 무장을 하라는 소리였다. 사단의 적지를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라는 소리였다. 그 시대의 영적 진공을 메꾸는 소리였으며 예언 없는 진공에 예언을 불어 넣는 소리였다. 해골떼를 향하여 예언의 생기를 불어 넣어 군대를 편성하는 소리였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돌아오는 내일을 바라보는 전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였다. 인류를 향하여 영원을 약속하는 소리였다. 극도로 부패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가는 소리였다.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영적 시대를 창조하는 소리였다. 자신을 과시하고 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위선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의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위선자, 교권주의자와같이 민중을 기만하는 외식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소리였다. 죄에 대하여 감각조차 없는 그 시대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소리였다.

회개

생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회개의 소리였다.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 의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 목적의 변화, 동기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간 전 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언 없는 황폐한 광야의 걸음을 그대로 계속하지 말고 예언이 통보한 말씀의 옥토로 돌아켜 걸어가라는 것이다. 인간 사고, 인간 권위, 인간적인 정치 공작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서서 절대 신양, 절대 의존, 절대 신뢰, 절대 복종의 걸음을 걸으라는 소리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의 또 하나의 소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였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32회나 나오는 말이다. 여기에 말한 천국은 일정한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다. 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말이다 (왕이 지배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적 지배를 의미한 말이며, 우주의 통치자 메시야의 왕림이 임박했다는 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내림을 의미한 말이다.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이다. 메시야의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말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 우리라” (마 3:10). 또한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둔 종말적인 준비를 의미한 것기도 하다. 마태복음 3:12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 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고, 또 갈라디아서 6:7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전도서 12:14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였고 계시록 22:12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6:27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할 때, 이 종말적인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며 교회봉사 생활에, 목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의 또 하나의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소리였다. 이

사야 40:3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坦케 하라 골짜기마다 돌우워지며 산마다 또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고하는 예언의 소리였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올 해방을 준비하라는 소리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라는 소리였다. 죄악의 골짜기, 고르지 않은 마음의 험한 산과 들, 비뚤어진 마음을 평지로 만들어서 오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였다. 다시 말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사기, 방탕, 악한 생각, 살인, 거짓 증거, 폐방, 분쟁, 원수 맺는 것, 술 취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에 험한 골짜기를 제거하고 평지를 만들라는 소리였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지극한 결손 속에서 흘러나오는 권위있는 하늘의 외침이었다.

우리도 어린 양 인자 앞에서 목회자로서, 교회 목사로서, 신자로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자. 매일 매일 종말의 그날을 준비하자. 이 말을 듣고 영적 기갈에 굽주린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가며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

그의 거주지는 인적 없고 고적한 광야였다. 그의 의복은 약대 털옷과 가죽띠였다. 그것은 가장 거친 약대 털로 써 짠 옷이었는데 가장 소박하고 피부에 감촉이 가장 거친 옷이었다고 한다. 이 옷은 소박과 검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선지자직에 가장 어울리는 의복이었다. 그의 의복은 세상의 모든 화려, 허영, 사치, 안일주의를 완

전히 배격하고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 사명에만 충성, 최선을 다하게 하는 상징이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메뚜기와 석청은 동양에 있어서 가장 순박한 빈민의 식용품이었다. 그의 의복과 음식은 세례 요한의 엄격한 경건과 금욕적 생활을 상징한 것이다. 그의 거주지, 그의 의복, 그의 음식, 이 모든 것 자체가 회개의 설교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활 자체가 회개의 설교였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 당시의 시대적 사상에 오염된 흔적이 전혀 없다. 디베라의 부요 계층의 호화로운 생활의 흔적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권리와 로마적인 화려한 문화 생활의 양식도 그에게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여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생활의 안일과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 그 당시 지도자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풍기는 비열한 냄새를 그에게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에만 열중하였다. 그에게는 오직 광야가 있었고 악대 텔웃이 있었고 가죽띠가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의 전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소리,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엄격한 금욕적 생활에서 배어나오는 소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그를 따랐다. 소리 이면에 있는 그의 소리는 그의 생활 속에서 배어나오는 소리이다. 영적인 기갈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는 많은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로잡았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여 대중들은 열광적으로 그에게 몰려들었다. 생활이 있는 소리,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요구되어지는 진실한 소리이다. 생활 없는 소리는 소리만 있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소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 목회자의 소리, 부흥사의 소리, 신학자의 소리, 간증자의 소리, 장로·집사·권사의 소리, 평신도의 소리, 할렐루야 아멘 박수의 소리, 이러한 범람한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귀는 아플 정도이고 많은 민중들은 요란한 소리에 염증조차 느낄 정도이다. 이와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은데 대중들의 영적 기갈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오늘 기독 교회에 교회당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짜임새 있는 목회 계획, 탁월한 전도 전략, 총동원 전도 계획, 목사·장로 세미나, 제직 세미나,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기도원의 기도 소리, 여의도 광장의 소리, 외형적으로 보아 무엇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중의 영적 기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만 있으니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기독 교회의 외치는 자의 소리 이면에 광야가 없다. 악대 텔웃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이 없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흥분자는 많고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대중의 심령 골수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형제여 어찌할고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웃을 찢고 마음을 찢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듣는 자의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삶의 방향 전환이 생기는가?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같은 성령의 열매가 오늘의 신자의 인격 속에 얼마나 결실되어 있는가? 오늘의 신자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대지도 없고 소지도 없다. 주석 책을 참고하여 전후좌우 빈틈없이 정돈된 조직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대중들이 그에게 나아와 앞을 다투어가며 세례를 받고자 모여들었는가? 그의 소리는 그저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책에서 얻은 지식만도 아니었다. 그의 단순하고 솔직하고 소박한, 외

치는 소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화생적 생활 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엄격한 금욕적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일반 대중들에게 그의 생활로써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현실 생활에서 염증을 느낀 대중들은 이 소박한 그의 생활 속에 너도나도 뛰어들어갔다. 오늘의 기독교회에는 화려한 교회당이 있다. 조직적인 설교가 있다. 각 기관은 빈틈없이 조직화, 체계화되어 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현대 교회는 문제가 많은가? 이는 소리 이면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골방이 없다. 밀실이 없다. 악대 텔웃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이면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엄격한 금욕적 생활이 없다. 마태복음 7:21-23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이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 하리니”라고 하였다.

역사적 종말,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했읍니다’ ‘나는 장로가 되어 치리를 했읍니다’ ‘나는 집사가 되어 교회 재정을 맡아 일했읍니다’ ‘나는 교인이 되어 주일마다 출석을 했읍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흥회를 했읍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읍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했읍니다’라고 할 그 때에 최후 심판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에게는 설교하면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교인을 치리하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마음대로 성내고, 남을 미워하고, 당짓고, 원수를 맺고, 거짓말하고, 거짓증거하고, 물질을 탐하고, 음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중심의 목회를 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는가? 신앙 중심, 은혜 중심을 부르짖으면서 모든 모략과 음모와 중상과 비난과 공격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굳히고자 하는 불법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실리에 급급하는 불법은 우리에게 없는가? 내 자신의 인간적 성공을 위해서는 반대자를 마음대로 책별하고 축출하는 불법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 나의 인기, 나의 명예가 앞서는 불법을 행한 일은 없는가? 교회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나를 과시하는 불법을 행한 일은 없는가? 인간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교권을 남용한 불법은 없는가? 화생을 부르짖으면서 내 자신을 살찌우는 불법은 없는가? 온유와 겸손을 부르짖으면서 교만의 불법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라고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의 안일과 영광을 추구한 불법은 없는가? 과연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악대 텔웃과 가죽띠로 만족하고 있는가? 과연 인간보다 인간의 수자보다 인간 그룹의 세력보다 진심으로 여호와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이 시간을 내어 살고 있는가?

오늘 기독 교회는 신앙이 상업화되어 가며, 교회는 기업화되어 가며, 목회는 직장화 되어가며, 교제는 불신 사회의 정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신자들의 경제 윤리의 폐락, 성생활의 부패, 극단적인 신앙 생활의 세속화,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는 끓기위질 것이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광야의 깊은 기도 생활, 세계 요한적인 생활의 혁신과 개혁, 이것이 오늘 기독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

절하다. 생활 없는 신자, 생활 없는 목회자, 생활 없는 교회 제직, 생활 없는 보수주의, 생활 없는 칼빈주의, 생활 없는 개혁주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한지,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오, 주여 ! 나와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 봇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바쳐 뼈가 녹는 회개를 하자 ! 기도의 지성소에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자 ! 기도와 회개 속에서 우리나오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적인 생활로써 이 시대를 비추이는 빛이 되자. 마태복음 5:16에는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추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나를 꽝야 깊은 골짜기에,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 속에 자신을 집어 넣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연마하고 끊임없이 무장하여 오늘의 교계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영적 생기를 불어 넣어 내일의 개혁주의, 한국 교회와 세계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계단 앞에 깨끗하게 바치자 !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의 회고와 전망

한 병 옥

(부산 괴정 제일교회 담임목사)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지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갓 100주년을 넘긴 연륜이란 역사의 측면에서는 긴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2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는 데 반하여 한국 교회 역사는 백 년 남짓하다. 세계 선교사적으로 관조할 때도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도 늦게 복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초대 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신 그 명령따라 전세계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전해 왔다. 5대양 6대주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다. 그것은 사도행전